

닭 없는 닭전머리... 발길 끊긴 양동시장



13일 오전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 한 닭 가게 주인이 텅빈 닭장 사이를 오가며 오지않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AI여파 10여곳 중 3곳만 영업... 쇠고기 판매점도 한산

야채·생선가게도 동반 타격... 인근 상가 매출 절반 급감

“시장에 고기 사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 덩달아 야채 장사도 안 돼요.”
13일 오전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 설 대목이 끝난 탓도 있었지만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사람의 발길은 닭과 오리를 파는 상점이 몰려 있는 곳에서 먼저 끊겼다. 이날 닭을 파는 곳이 몰려 있어 양동시장 닭전머리로 불리는 거리의 닭장은 텅 비어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상인 김모(63)씨는 “두 달 가까이 닭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고, 오늘은 토종닭 5마리를 사서 손질 한 뒤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류

독감 닭에 생닭을 찾는 사람이 없고 무작정 보관할 수도 없어 그나마 사들인 닭은 그때그때 도살하고 있다.
10여 곳의 닭 상점 중 이날 제대로 문을 열거나 주인이 가게를 지키고 있는 곳은 3곳에 불과했고, 냉동닭이나 대형유통업체에서 공급된 손질된 닭을 파는 곳도 드물었다. 야채 가게 문을 닫고 쉬는 곳도 4곳에 달했다.
인근의 돼지고기, 쇠고기를 파는 거리의 풍경도 비슷했다. 아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지만 구제역 파동으로 소비자들의 발길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게

상인들의 설명이다. 또 구제역으로 고깃값이 오를 것이라는 소문 탓에 공급된 물량을 모두 팔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다.
이처럼 육류매장의 장사가 되지 않자 야채와 생선 가게들의 매출도 줄고 있다. 양동시장의 한 야채 가게 상인은 “야채만 사겠다고 시장을 찾는 사람은 없다”면서 “주 구입품목이었던 고기의 소비가 줄면서 인근 상가의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하소연했다.
무엇보다도 잦은 가축 전염병으로 고기 가격이 오르고 믿고 먹을 수 없다는 편견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퍼져 더욱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이 줄고 있다는 게 상인들의 걱정이다.
한편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계란 1판(30개, 특란) 가

격은 7945원으로 1만원을 넘어섰던 한 달 전에 비해 2000원 이상 하락했다. 아직은 평년가격 5591원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주 후반 7892원까지 떨어진 이후 7900원대 전후로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닭고기(중품·1kg) 가격도 5475원으로 보통 전인 지난달 31일 4915원에 비해 500원가량 올랐다. 국산 냉장삼겹살(중품·100g) 소매가격 평균은 1787원으로 평년가격은 1704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우 갈비(1등급·100g) 소매가격도 평년가격인 4442원보다 400원가량 비싼 4861원에 거래되고 있지만 1달 전 가격인 5214원, 1년 전 가격인 5140원보다는 낮아서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시총 100대 기업 지난해 실적 개선

총 매출 전년보다 12%↑... 효성 첫 '1조 클럽' 가입

효성 등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의 지난해 실적이 전년과 비교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는 100대 기업 중 지난 10월까지 발표된 75개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잠정실적을 집계한 결과, 전체 매출은 1344조1074억원, 영업이익은 111조103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같은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1.7%(21조9366억원)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영업이익은 12.4%(12조2976억원) 증가했다.
기업별로는 매출이 늘어난 기업이 전체의 77.3%인 58개사였고, 영업이익이 증가한 곳은 69.3%인 52개사였다. 이 중 매출과 영업이익이 함께 늘어난 기업은 44개로 전체의 58.7%였다.

네이버, LG생활건강, 롯데케미칼, 아모레G, 고려아연, 우리은행, 엔씨소프트, 카카오, CJ제일제당, BGF리테일 등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 역시 지난해 매출(0.6%)과 영업이익(10.7%)이 모두 늘었다.
효성은 지난해 1조163억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1966년 창사 이후 최초로 1조 클럽에 가입했다. 효성은 2015년 9502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1조 클럽 가입에 실패했으나 이듬해 이듬해 이듬해 올리는 데 성공했다.
반면에 매출이 줄어든 가운데 영업이익이 늘어난 불황형 흑자기업은 전체의 10.7%인 8개사였다. /김대성기자 bigkim@

“청렴조합 앞장” 광주축산농협 정기총회



광주축산농협(조합장 안명수)은 13일 조합 대회의실에서 이흥묵전남농협본부장, 안명수 조합장은 “이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어떻게든 경제사업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조합원들이 생산한 축산물 판로 확대와 더불어 수익구조를 다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앞장 설 것을 다짐하는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도 결집했다.
안명수 조합장은 “이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어떻게든 경제사업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조합원들이 생산한 축산물 판로 확대와 더불어 수익구조를 다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78.65 (+3.57)	↓ 금리 (국고채 3년) 1.66% (-0.01)
↑ 코스닥 611.94 (+1.36)	↑ 환율 (USD) 1152.00원 (+1.40)

박삼구 회장 “금호타이어 인수 자신”

“투자자 여럿 있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인수에 도움이 될 전략적 투자자(SI) 모집에 자신감을 보였다.
박 회장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 이미 확보한 재무적 투자자(FI) 외에 SI를 찾으려고 한다”며 “도와 주려는 곳이 여럿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SI는 한국데나 두 군데, 또는 여러 곳이 될 수도 있다”면서 “지금도 찾고 있고, (인수가) 끝난 뒤에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미 FI를 확보해 1조원의 자금을 마련한 상태에서 금호타이어를 가져오는

데는 문제가 없으며, 회사를 안정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인수 후 SI를 모집해도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시장에서 인수 자금을 아직 다 마련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는 말에 박 회장은 “알아서 해석하라”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조원을 마련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재무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SI와 접촉을 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한편 박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말 걸지 않은 소리”라며 일축했다.
박 회장은 “전경련 회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좋을 것”이라면서도 회장 말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었다.
/연합뉴스

광주 주거용 건축면적 전국 최고

건축물 연면적 54.35%... 전남 단독주택비율 가장 높아

지난해 광주 지역 주거용 건축물 면적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주거용 건축물 중 단독주택 비율이 가장 높았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16년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광주 지역 건축물 연면적은 9690만5000㎡로 이 가운데 주거용 면적 비율은 5262만8000㎡(54.35%)로 전년 5025만㎡에 비해 증가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주거용 건축물 중 아파트 비율은 73.2%로 세종(76.4%)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다.
전남 지역 건축물 연면적은 1억5291만㎡로 이 중 주거용 면적 비율은 6358

만1000㎡로 전년6154만㎡에 비해 늘었다.
전남 지역 주거용 건축물 중 단독주택 비율은 3065만3000㎡(4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노후 건축물(30년이상)과 노후 주거용 건축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모두 전남 진도군(각 39.8·59.8%)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의 건축물 연면적은 전년 대비 3.9% 늘어난 35억7362만5000㎡, 동수는 1.0% 증가한 705만4733동으로 집계됐다. 전국의 건물 연면적을 모두 합치면 서울 63빌딩 연면적(23만8429㎡)의 569배에 달한다. /김대성기자bigkim@

조달청, 여수 용문도에 찾잔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광주지방조달청(청장 박정환)은 지난 10일 여수 용문도에(대표 김선옥)의 '전통문화장터 외 4종'에 대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달청은 우리 고유의 전통공예의 맥을 잇고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내 전용몰을 구축하고 조달수요를 면제하는 등 전통공예품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박정환 광주지방조달청장은 “중요 무형문화재, 명장 등 장인의 손끝에서 빛어지는 우리 지역 전통문화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전통공예의 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선옥 용문도에 대표는 지난 2013년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대한골프협동조합과 함께 골프, 리조트 한번에 다 누리세요!!

대한골프협동조합

회원가입 절차

- *신청서 작성 (팩스, 카톡, 문자 가능)
- *년회비 (130,000원)

회원가입 혜택

- *제휴 골프장 및 리조트 할인혜택
- *제휴 골프용품 할인혜택
- *국내, 해외 골프투어

대한골프협동조합

골프장 선불회원 컨설팅 사업

국내외 골프투어

지역사회 공헌사업

골프협회 육성/골프장나무 지원

KGC 대한골프협동조합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8(치평동 890-12) ☎(062)371-1800 · 010-6270-1879

특허방수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2중압박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지재 추천제품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의 특징

- 1/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2/ 건축 내외장재 패턴디자이너 잔 멘디니의 콜라보 디자인!
- 3/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헛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4/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명예홍보이사 탤런트 이영후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www.ipalg.co.kr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